

### 진도 모사마을과 향토기업 아침가리 업무제휴 협약



진도군모사마을협동조합은 최근 모사마을회관에서 진도 향토기업인 (주)아침가리와 주민소득 향상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모사마을협동조합과 (주)아침가리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위탁 가공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농수산물에 대한 고유 브랜드화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모사마을 주민을 우선 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광병욱 어촌계장은 "어촌뉴딜 300 사업이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우수한 가공 능력을 가진 지역기업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진도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전남사랑의열매,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 지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가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141곳에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억2900여 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아동·청소년 방학기간 특별프로그램(과학·창의·독서·요리 등)과 정서·문화적 프로그램, 신학기 준비 물품구입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노동일 전남사랑의열매 회장은 "방학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걱정이 크다"며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동강대 응급구조학과 박시는 교수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 회장 선출



동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박시는 교수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이하 전응협) 제 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95년에 창립된 '전응협'은 전국 43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교수들이 응급구조학의 교육학적 방법론 연구, 학과 인증, 교육 및 연구발전, 교과서 편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장 및 자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박시는 신임 회장을 "2년 임기 기간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재난의학회 등과 힘을 합쳐 응급구조학과 관련된 질 높은 표준교과서를 출간하는데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국가 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한응급구조학회 사업위원장, 대한응급구조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응급의료연구재단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연구(보건복지부)' 등 응급구조사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신대, 독서칼럼 모음집 '금성산의 아침햇살' 발간



동신대 중앙도서관(관장 남궁협 교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대학 교직원 개인 메일을 통해 한 편씩 발송·연재한 제2기 독서칼럼 모음집 '금성산의 아침햇살'을 책으로 발간했다. 동신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독서 토론 문화와 지적인 소문을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독서칼럼을 추진하고 있다. 제2기 집필진에는 동신대 교수 8명,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책에는 이들이 그 동안 연재한 독서칼럼 40편과 특별기고 2편, 객원칼럼 3편 등이 실렸다. '내 하루를 바꾸는 기적', 'COVID-19 이후의 우리들', '삶이라는 문제', '공공적 주택정책', '인공지능', '백신', '좋은 아버지', '차별과 혐오', '익숙해서 불편한 우리 이야기', '미중 패권 경쟁' 등 우리 삶은 물론 국제·사회·정치·경제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적십자사, 북구지역아동센터 직원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광주북구지역아동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7월 광주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전남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교육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화이트루프 캠페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북부권지사(지사장 박정수)는 합평지역 마을회관 2곳을 찾아 퇴약법을 덜 받도록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화이트루프 캠페인'을 벌였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5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스포츠 문제아들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여기는 도쿄 <배구/탁구/사격/배드민턴>	30 2020 도쿄올림픽 <배구, 대한민국:세르비아/헝그리, 대한민국:양골라>	35 SBS 도쿄올림픽 <여자배구/레슬링/여자핸드볼/탁구>
09	0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비치발리볼>		50 MBC 뉴스	
11			00 2020 도쿄올림픽 <아구본선/레슬링>	00 SBS 도쿄올림픽 <아구/탁구/배드민턴>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2020 도쿄올림픽 <테니스>			
01	0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다이빙, 사이클>			
02				
03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탁구, 체조>	00 2020 도쿄올림픽 <탁구/체조/다이빙/사격>	
04	00 시사간전			
0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SBS 도쿄올림픽 <체조>
06	00 6시 내고향	00 여기는 도쿄 <아구>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메달 명장면>		40 안싸우면 다행이야	30 KBC 8 뉴스
0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00 생활의 달인
10	00 조선잡, 드림 더 비트	40 개는 훌륭하다	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리켓소년단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랜선 장터(재)	30 굿나잇 도쿄	40 도쿄 투나잇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활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코몽2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5 머털도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꼬미와 베베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풍경은 영화처럼 -마법의 땅, 스코틀랜드>
08:00 덩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 e	21:30 한국기행 <여름, 잠시 쉬어가요 1부 우리집으로 놀러오세요>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명TV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어클 다이어리
09:00 뽕뽕뽕 뽕뽕로	16:00 마사와 꿈	23:35 클래스 e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덩동맹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일 (음 6월 24일 壬午)	☎ 010-9790-8237
36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48년생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60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72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84년생 새를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96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0, 77	42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54년생 잠시 숨을 돌릴 겨를이 꼭 필요하다. 66년생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의 미가 점점 희석되어 갈 것이다. 78년생 물줄기가 세차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물러남은 돌 수가 없다. 90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 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02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3, 94	
37년생 마음먹은 대로 결과물을 낼 수 있다. 49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 될 수도 있다. 61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73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85년생 규칙적이고 역동적인 위상이다. 97년생 기회는 나는 새처럼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6, 69	43년생 미면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55년생 멀어 보이던 사실이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알라. 67년생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79년생 생김꼴만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라. 91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03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8, 65	
38년생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나 실무에 능해야 한다. 50년생 사려 깊은 성찰 속에 해안이 열리게 될 것이다. 62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74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86년생 듣기 좋은 말이 독이 될 수도 있다. 98년생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1, 67	32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잠작하자. 44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원이 절실한 때이다. 56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연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다. 68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80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자라. 92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49, 81	
39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51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라. 63년생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5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87년생 일취월장의 전적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99년생 술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13, 98	33년생 세상일이란 것이 억지로는 되지 않는 법이니 절대로 무리할 필요 없다. 45년생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57년생 완벽하게 합치하기란 힘들 것이다. 69년생 소모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과감하게 버려야만 한다. 81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3년생 누적된 모순이 방범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11, 54	
40년생 겉모습에 현혹 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52년생 별 탈은 없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 64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76년생 다자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고뇌가 보인다. 88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00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인다. 행운의 숫자 : 47, 87	34년생 초심으로 일관한다면 기쁨과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46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58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정하는 의미는 크다. 70년생 자서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82년생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10, 91	
41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들여 왔던 것을 수확하는 때가 있다. 53년생 경중을 따라 완급을 조절해야 할 때이다. 65년생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77년생 구체화되면서 가능성을 높게 되느니라. 89년생 격식에 맞아야만 빛도 밝히는 법이다. 01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8, 80	35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47년생 완성도를 높여야만 할 때다. 59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함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71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상황이다. 95년생 앞장 걸실은 이루어 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76	